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주일에배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1월 21일 (제112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구분하라

내 큰아들이 중국에서 공부할 때의 일이다.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한다고 어려서부터 나에게 배웠던 아들은 학교 앞에 있는 노숙인에게 가끔 돈을 주었던 모양이다. 한 끼라도 제대로 먹게 하고픈 마음에서다. 학생인 아들이 돈이 많을 리가 없을 터, 어느 날 그 노숙인 앞을 그냥 지나가는데, 그가 '어이~~ 학생' 하고 부르더라. 아들이 다가가니, 노숙인은 '왜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냐?'고 다그쳤단다. 아들은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다고 나에게 털어놨다.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애야, 성경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잠3:27)고 하셨다.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겠니? 과부와 고아 같은 자란다(사1:7). 기력이 있고 사지가 멀쩡한데도 무위도식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의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는 꼴만 되는 거야."

나는 해외 선교사에게 선교자금을 보내줄 때 기준이 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건이 따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자에겐 아낌없이 지원한다. 가만히 앉아서 본부에서 오는 돈만 바라는 자는 일체 없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국가에서 젊은이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뛰는 자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 지원금이나 바라고 청춘을 허비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비취주시고 비를 내리신다(마5:45). 보편적인 은혜다. 그러나 하나님도 구원 얻은 자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자를 구분하신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인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요, 주의 법대로 행하는 자요, 주의 뜻을 행하는 자다. '누구 나에게 주신다면 누가 좁은 길을 가겠는가, 누가 주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넘겠는가. 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겠는가.'

추수감사절이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인가?' 생각해본다. 만일 거둔 것이 없다면, 손에 뽕이 없다면 마땅히 받을 자가 못된 건 아닐까!

성경이 시사(示唆)하는 바를 깨달아라

오늘날은 정말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할 만하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TV 몇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차고 넘치고,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류에 흔들리는 무수한 정보들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이 무엇이라 말 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시사(示唆)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한다고 목사님은

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살전5:15).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 좁은 길을 가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항상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악을 용인하면 악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그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멸절시킨 영웅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

더니 자기 밑에 꿇지 않으면 다 불살라버 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 같으니 너희가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배반하여 원수로 갚은 것이요, 결국 다 망할 것이다.' 그 말대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 이간질시킴으로 배반과 배반 속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신앙보다 사상과 이념, 혈연, 지연, 학연 등 인간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에 휘둘려 악을 의롭다



KBS88체육관 주일에배 광경

지난 수요일에배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먼저 시사(示唆)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시(示)는 볼 시, 가르칠 시, 알릴 시입니다. 사(唆)는 부추길 사, 가르칠 사, 깨우칠 사입니다. 곧 시사(示唆)한다는 말은 본 것을 알리고 가르쳐서 깨우치도록 부추킨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이 무엇을 시사(示唆)하는가? 무엇을 가르쳐 깨달으라 하는지 유념해 봐야 합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대선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잘 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잠언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와 미워 하심을 입느니라'(잠17:15)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17:13)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삼

니다. 그중에 세겜의 여종에게서 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기드온이 죽자 자기 외가인 세겜 사람들을 충동 질해서 '기드온 70명의 아들보다 이왕이면 우리 세겜 사람 아비멜렉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형제 아닌가.' 하며 혈연, 지연을 자극합니다. 세겜 사람은 이에 다 넘어가고 아비멜렉은 돈을 주고 산 잡배무리들을 이끌고 가서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주살합니다. 그중 막내아들 요담만 살아남아서 도망갔는데,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이를 지켜보며 큰 소리로 나무를 비유로 들며 경고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차례로 찾아가 왕이 되라 했더니 그들은 자신의 역할과 분수를 잘 알고 요동치 않았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거만하여 왕이 되겠다고 하

하고, 의를 악하다 한다든지, 악조차도 선으로 갚으라 하였건만,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짓을 저질렀다가는 모두가 공멸하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합에 빌붙어있던 거짓선지자들처럼, 당장은 권력의 편에 기생하는 거짓이 이기는 것 같으나 결국엔 실상이 드러나고 진실이 승리합니다. 우리의 정치사나 교회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시사(示唆)하는 바를 잘 깨달아서 악으로 선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추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의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3-14). 할렐 루야!"

한은택 목사

위드코로나, 단계적 원상회복 조치로 50% 대면예배 실시

주일에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4:7~14)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찌니라”(잠4:7).

지혜는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이며, 현명한 처세술을 말합니다.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곧 처세술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뉘며, 브랜드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나 LG가 상표이듯 ‘나’ 자체가 브랜드, 곧 상표입니다. 세계시장에 내놔올 때 품질이 좋으면, 이미지가 좋으면 브랜드 가치는 상승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고, 행여 하자가 생기면 AS는 물론 대대적인 리콜까지 감행하면서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 못지않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올 7월에 저는 중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부를 돌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처세술에 대해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잘 팔리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네 처신을 잘하라.’고 말했고, 몇 가지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Promise is very important!’(약속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Kindness is very important!’(친절함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First impressions are very important!’(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대중 듣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을 생활로 직결시켜 성공한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어느 젊은이가 저에게 “목사님, 그다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다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갈까 합니다. 다섯째, ‘Manners are very important!’(예의가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품위와 품격이라는 그릇에 예절이라는 음식을 담으면 어디를 가든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예절 중 첫 번째는 어디에서든 상석에 앉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눅14:8~9).

만일 파티에 초대되었는데 텅텅 상좌에 앉았다고 합시다. 그를 본 사람들이 ‘재,

왜 저래?’ 하고 먼저 쑥덕거릴 겁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상사나 외부인사가 도착했을 때 주최 측에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얼마나 낮이 뜨겁고 민망하겠습니까?

말석에 앉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랑 호형 호제하는 분으로 세계적인 석학이며, 큰 기업의 오너로 있는 분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그가 미국 모 정당 파티에 초대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조언해준 대로 그는 제일 말석에 앉았답니다. 그런데 그 파티의 주최자며 정당의 총재가 나타나더니 이분을 발견하고는 직접

내려와 ‘왜 여기 앉아 계시냐?’며 손을 잡고 자기 바

로 옆 자리로 내려가 앉습니다. 거기에 미리 자리 잡았던 자들은 다 밀려난 셈이지요. 다들 ‘저 분이 누구기에 그러냐?’ 하는 표정들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은이니라”(잠25:6~7)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더욱 심도 있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14:11)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어느 모임에 초대되어 갈 일이 있거든 미리 밥을 좀 먹고 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배고프고 허기진 상태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결신들린 것처럼 추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허물없는 가족이나 친구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상사 앞이거나 당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 앞이라면 문제는 달라 집니다. 그런 자 앞에서 먹는 것에 집착한다면 인격이나 이미지는 완전히 땅에 떨어

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잠23:1~2). 즉 먹는 것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진 말씀이 있는데, 이를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잠23:3). 이 말씀은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호의나 우정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시험해보려는 목적일 수도 있으니 누구 앞에서든 결신들린 듯 허겁지겁 먹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

의 말씀은 참으로 자상하고 섬세합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말입니다.

셋째, 옷차림도 이미지에 한 몫 하니 신경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티에 갈 때나 예의를 갖춰야 할 때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예전에 제가 당한 일이 생각나네요. 아주 오래 전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초청한 어느 박사의 안내로 상류층이 출입하는 한 클럽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 박사는 저에게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웃까지 준비해줬지만, 저는 그런 음식점이 어디 있겠냐며 고집을 부리고 그냥 편한 차림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한 고집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 입구에서 저는 입장을 제지당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이 준비해 온 양복을 입고서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내쫓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여늘...”(마22:11~12).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회개와 믿음이라는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실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옷이란 장소와 시간, 그리고 상대에 따라 갖춰 입어야 합니다. 등산을 하는데 하이힐에 치마를 입고 가서는 안 되듯, 격 있는 자리나 사람을 만날 때는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고, 예절이며, 자기의 주가를 스스로 높이는 일입니다.

넷째, 약속 장소에 상대보다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여유를 가지면 상대를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 수 있고, 또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가끔 저는 쉬는 날 믿지 않는 재계의 CEO들과 골프를 합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항상 약속 시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 차가 도착하면 차문도 열어줍니다. 저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헬레벌떡 달려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는 벌써 감점이고, 탈락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부지런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여늘...”(마22:11~12).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회개와 믿음이라는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실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옷이란 장소와 시간, 그리고 상대에 따라 갖춰 입어야 합니다. 등산을 하는데 하이힐에 치마를 입고 가서는 안 되듯, 격 있는 자리나 사람을 만날 때는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고, 예절이며, 자기의 주가를 스스로 높이는 일입니다.

넷째, 약속 장소에 상대보다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여유를 가지면 상대를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 수 있고, 또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가끔 저는 쉬는 날 믿지 않는 재계의 CEO들과 골프를 합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항상 약속 시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 차가 도착하면 차문도 열어줍니다. 저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헬레벌떡 달려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는 벌써 감점이고, 탈락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부지런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품위와 품격에 예절을 담으라

여러분, 70년 세월 넘게 살아보니 ‘행로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란 길을 가면서 얻은 법칙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지혜도 다 행로법칙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곧 점검입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잘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잠25:28)고 훈계한 것입니다. 나 하나,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수신제가(修身齊家) 후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인데요.

배움의 끝은 실천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이며, 우리 주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하나님의 복음

대한제국 말엽, 평양에는 유명한 강패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출생한 그는 어릴 때부터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반항심으로 주먹과 머리를 휘두르는 박치기 강패로 유명했지만, 반면에 유교에 대한 남다른 신봉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는 음흉한 계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평양 거리에 서양 사람의 한 사람인 썸 마켓 선교사가 들어와 날마다 복음을 전하자 강패 두목인 그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에게 돌팔매질을 하여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렸고, 선교사가 하는 모든 교회 일에 강패를 동원해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를 찾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평양 시내를 누비며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 최초 7명의 목사 중 한 사람이자 한국 최초 선교사로서 제주도와 전남 일대를 영적 능력과 신유의 은혜로 교회 부흥을 크게 일으키다 일제탄압으로 순교한 이기풍 목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 가장 율법적인 바리새

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탄압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테반 집사를 순교하도록 만드는 데 일조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지역까지 쫓아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이방인에게 선교하다가 순교하였지만 결국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 우리에게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기풍 목사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뿐만 아니라 죄인들마저 귀중하게 보시어 죄인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귀중한 일꾼들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순간순간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들을 용서와 자비로 영생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4:16).

이관섭 장로

:: 신앙논객 ::

기도를 멈추지 마라

몇 주 전, 대학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 “너희 대학부에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기도다!” 그러시면서 설교시간에 설교를 길게 하지 말고 기도를 시키라고 말씀하셨다. 마침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교육관에 함께 모여 기도모임을 못한 지 꽤 되어서, 각자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든 기도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라는 목사님 말씀으로 설교를 간단히 마무리하고, 30분 동안 기도회를 가졌다. 그랬더니 대학부원들로부터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았다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다.

그때 기도시간에 틀렸던 곡 중 하나가 요즘 우리 교단에서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때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이제 역전되리라’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의구심이 들 때면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로로 당신의 뜻을 거듭 강조하시고 확증하신다. 가사부터가 그때 내가 받은 감동이 결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음을 알려주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

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은 대학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단과 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멈추지 말고 다시금 기도의 불을 태워야 한다는 것을 예배시간마다 저 찬양가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급기야는 얼마 전 수요일예배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호령을 내리셨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와 기도처에 기도의 불이 다 꺼져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요 며칠 전부터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쉬어줘야 회복되겠다 싶어 새벽기도를 쉰 지 사흘 만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고, 평소 하던 기도의 양을 두 배로 늘렸다.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연거푸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이 경고가 나를 무시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기도 중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거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집승과 같다(시49:20). 기도를 멈추지 마라!

신혁주 전도사
blessedmlc@naver.com

간절함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다. 그러나 여우는 토끼를 잡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지만, 토끼는 죽기 살기로 뛰기 때문이다. 즉,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일사각오의 정신 말이다. 그 무엇이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이루고자 하는 것의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온 인류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다(눅22:44). 수로보니게 여인도 개 취급을 받는 무시 속에도 딸을

고쳐보겠다는 간절함이 예수의 능력을 끌어내게 된다(막7:25~30).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 선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홍해를 가르게 했다(출14:13~16).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 역시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바랐더니 축복을 받게 된다(창32:24~29).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왕상18:37~46),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생명을 연장 받으며(왕하20:1~6), 한나의 간절함이 사무엘을 낳은 것이다(삼상1:10~20).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는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고, 간절한 바람이 하늘 문을 연다. 간절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믿음에 간절함을 더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천국 가자!

모든 종교, 수행단체의 궁극적 목표는 영생이다. 그 종착역이 천국인 것은 죽음과도 맞바꿀 귀한 가치이다.

이 중요한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풍조가 있다. 불쌍하게 아무 상급도 없이 거지처럼 천국 간다며 매우 하찮게들 여긴다. 그런데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자, 얼마나 될까?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뭘들 못할까?

불행히도 천국행 티켓을 받는 자, 극히 적을 것이라 느낀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둬를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둬를 당할 것이니라”(마24:40~41)고 언급하셨다.

천국행 티켓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걸 거지나 사마리아인과 십자가의 강도는 가지고 있었다. “주여, 당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죽을죄를 졌습니다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회개하며 주께 의지한다. 주님께서 말하신다. “네가 오늘 죽은 후 낙원에서 나를 만나리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부자

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한 방울의 물이었다. 모든 걸 누렸던 부자가 물 한 방울을 간청한다. 그러니 천국 가자.

내 첫 설교가 ‘말년 복이 진짜 복이다.’였다. 말년,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다. 말년이 좋으려면 지금이 순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 말년이 좋다. 이 믿음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끝까지 간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돌아보자. 내게 성령이 함께하시고 사랑이 넘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가. 주위를 화평케 하고 있는가. 모든 것에 오래 참으며 심신을 절제하는가. 긍휼히 여기며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선한 마음으로 주위를 대하며 사람과 하나님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녔는가. 돌아켜보면 모든 점에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겸손하게 기도한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천국이니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의지한다. 최고의 믿음은 의탁이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과 같이 나를 주님께 맡긴다.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이광주 목사

이것이 행복이라오

요즘 기도 제목이 생겨 마음이 참 감사했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보고, 조마조마하다가 긴장도 되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하는데 문득 '이제까지 늘 좋은 길로 인도해주셨으니 이번에도 우리에게 딱 맞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실 거야.'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정예배도 드리며 지내고 있는데 문득문득 걱정스러운 마음이 또 생겼다. 우울했다가 괜히 서글펐다가 괴롭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길 바라지 않으실 거야,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실 거야, 내 기도를 받고 싶으셔서 이런 상황도 만들어주신 걸 거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며 기도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다. '천국도 지옥도 내가 생

각하기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기도하는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 즐거움으로 기쁨의 시간을 보냈지도 내 결정에 달려있다. 아이들을 보며 남편을 보니, 걱정은 사라지고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보내는 것이 행복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기도하며 찬양을 듣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 주며 사는 삶 /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라오 /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라오 /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이 느껴졌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화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녀가 괴로워하기를, 걱정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실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도, 불행도 따라온다.

정효경 집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생복락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예수님의 품

날마다 마루에 앉아 저 멀리 언덕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열 밤만 더 자면 저 언덕을 넘어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라고 동생을 달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리광을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크게 웃어봤던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문제로 시골의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를 늘 그리워했던 기억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부모님께서 저희 형제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동생은 얼른 달려가 어머니 품에 안겼지만, 저는 너무 어색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후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이상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옷소매를 물어뜯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있을 정도로 내성적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옆집 권사님을 통해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린 저를 만나주셨고, 우울하던 마음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내다가, 또 어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형제는 어쩔 수 없이 시골의 할머니 손에 다시 맡겨졌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사를 거부하는 어머니가 꺾박받던 때라, 할아버지는 교회와 어머니에 대해 나쁘게 이야

기하며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고 세뇌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9살의 어린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할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제사 때마다 할아버지를 피해 숨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교회가 없을뿐더러, 할아버지께서 심하게 단속하시니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는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과도, 교회와도 단절된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으니 예전처럼 우울한 생각이 찾아오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암울하기만 하던 마음이 정점으로 치닫는 일이 터졌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 '사람 찾아 달리기'를 진행했는데, 종이에 적힌 사람을 찾아와서 함께 달리는 경기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달려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종이에선 하필 '엄마'라는 단어가 적혀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없는데... 나는 혼자야.' 충격에 휩싸여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 주셔서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암울하던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서 비집고 나올 때면 다시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운동회가 있던 날, 그 자리에 서 있던 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따스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어루만지며, 끊임없이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한다, 아가야." 부모님과도, 교회와도 끊어져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외롭고 힘겨웠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울했던 흐린 날의 기억을 한순간에 따스한 햇살 가득한 날의 추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고통 받는 이를 보면 위로해주고 싶지만, 위로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위로하기가 쉽지 않고, 아픔을 당했을 때 위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아픔이 가장 크게 보이기 마련이고, 그 일을 겪지 않고는 그 아픔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위로해주시며, 고통의 때에도 함께 하시고, 아픔의 근원을 치유해주시니 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뢰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고후1:3-4).

정명관

이름, 불러주자!

고교시절 공부에 두각이 없고 말수가 적었던 나는 선생님들께 이름 없는 일상의 희미한 존재였다. 팝송에 심취하여 당시 자정까지 이어지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청곡과 사연을 보내며 별밤지기와 소통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영어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잘 듣고 있다며 미소를 지으셨다. 깊은 밤 선생님과 오랫동안 공유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느꼈다. 이후 영어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공부에 매진했다. 당연히 성적은 고공행진 했으며, 담임선생님은 그런 나를 공개적으로 급우들 앞에서 칭찬해주셨다. 몇몇 선생님들은 교과 성적 상위권인 내 이름을 기억해주셨고 발표도 시키곤 했다. 방학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등교하여 학업에 전념한 결과 드디어 장학금까지 거머쥐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중고등부 예배를 가기 싫어하던 딸이 어느 날, "엄마! 이시대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신이 난 딸은 스스로없이 목사님께 다가가 상담도 하고 한층 밝은 모습으로 변모하며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 이시대 목사님이 제일 좋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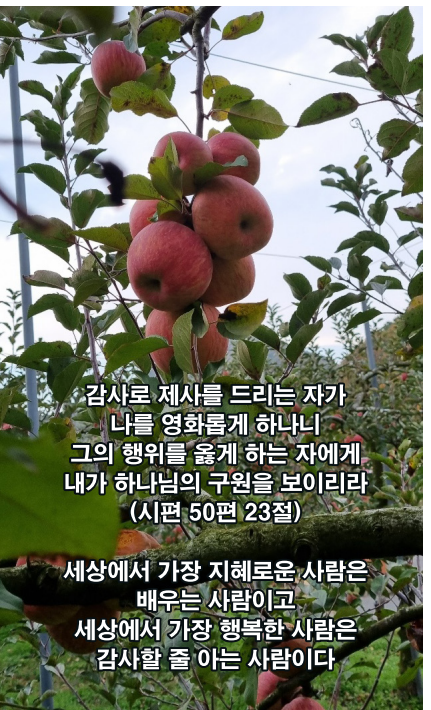
늘 '누구 엄마'로 부르던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없던 힘이 나고 지루했던 삶이 생기가 돈다고들 한다. 자신을 되찾은 것 같다나.

이처럼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많은 무리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이삭과 야곱의 이름도 기억하고 불러주셨다. 어쩌면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부르고 계신다. 이것이 당신의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의 끈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추성숙 집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